Crisisonomy Vol.12 No.6, 143-160
ISSN 2466-1198 (Print) ISSN 2466-1201 (Online) http://dx.doi.org/10.14251/crisisonomy.2016.12.6.143
© 2016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 Theory and Praxis. All rights reserved.

Crisisonomy

Cultural Peculiarities and Risk Perception among Korean People

-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Risk Types -

Jungeun Yang[1#+], Soo Jin Kim[2]

[1] Assistant Professor, Pyeongtaek University, Seodongdaero 3825, Pyeongtaek-shi, Korea
[2] Post-Doc. Fellow,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Abstract

The study extends the current studies about the association between culture and risk perception by defining emotion as a mediating variable and risk types as a moderating variable. Our findings show that Koreans have emotional reactions when they face risky situations. We find that cultural peculiarities such as "*Chemyon*", which means concerning their reputations, or "*Uri*", which means collectivism,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emotional reactions such as anger, sympathy, and fear under the risky situations. Among the emotions, fear is related to risk perception. The risk type moderates the level of influence of culture on emotion and risk perception. While if risky situations are understood as government-responsible, *Chemyon* plays a stronger role in initiating emotional reaction, if the risky situations understood as relatively less government-responsible, *Uri* plays a stronger role in emotional reactions.

Key words: risk perception, emotion, culture, Chemyon, Uri, risk communication

Ⅰ. 문제제기

오늘날 위험인식에 대한 접근은 전문가 중심의 기술-경제적 접근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의 '표현된 선호(expressed preference)'에 근거한 심리적-사회적 접근으로 발전하고 있다(Taylor-Goody & Zinn, 2006). 즉 일반인들이 특정 위험을 위험하다, 혹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과학적 지식이나 통계수치보다는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Renn, 1992). 위험인식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위험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socially constructed) 과정에서 문화적 요인의 역할에 주목하는데, 한 사회가 가진 문화적 특성이 특정 문화권의 사람들이 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Douglas & Wildavsky, 1982).

문화와 위험인식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이다. 문화이론 연구들은 문화적인 요인이 특정 위험을 더 위험하게 혹은 덜 위험하게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Douglas & Wildavsky, 1982; Dake, 1991, 1992). 그

The 1st author: Jungeun Yang, Tel. +82-31-659-8227, Fax. +82-31-659-8011, e-mail. jeyang@ptu.ac.kr
+ Corresponding author: Jungeun Yang, Tel. +82-31-659-8227, Fax. +82-31-659-8011, e-mail. jeyang@ptu.ac.kr

www.kci.go.kr

러나 문화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대부분 '문화적 요인이 특정한 위험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수준의 결론에 그치고 있다. 즉 문화 변수와 위험인식 변수 외의 요인들은 고려되지 않아, 문화와 위험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역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학자들은 위험인식에 대한 문화요인의 설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적인 요인과 함께 다른 변수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jőberg,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화와 위험인식 연구를 확장하여, 문화와 위험인식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변수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중재하는 매개변수로써 감정의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양한 변수들 중 특히 감정을 매개변수로 고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상황에서 감정은 위험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위험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감정에 의존하여 위험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크다(Finucane. *et. al.*, 2000; Lowenstein, *et. al.*, 2001; Slovic, *et. al.*, 2004). 선행연구에 의하면 긍정, 부정과 같은 감정의 유인가(valence)뿐 아니라 분노, 공포와 같은 구체적인 개별정서가 위험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erner & Keltner, 2000, 2001).

둘째, 감정은 문화적인 요인과도 관계가 있다(Hemert, *et. al.*, 2007). 특히 한국인들의 위험인식을 연구함에 있어 감정에 대한 고려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종종 스스로를 '감정적인 민족'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위험이나 위기, 갈등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감정적인 모습이 자주 발견된다. Jeong(2007)은 한국인의 문화를 설명하는 문법 중 하나로 '감정우선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들이 합리성과 원칙보다는 정서와 감정을 앞에 놓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Jin(2006)은 "한국인들은 이성적이기 보다 정서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보다는 감정이입 적으로 느끼며, 개인으로보다 집단으로 행동하고, 토론을 통한 합의보다는 말싸움을 통한 대결을 더 즐긴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감정이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인 특징이 어떠한 감정반응을 거쳐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한국인들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특징을 설명함에 있어 일반문화변수(etic)가 아닌 고유문화변수(emic)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일반문화변수와 달리 고유문화변수의 목적은 각각의 문화권이 가진 독특한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Kim & Berry, 1993),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고유문화변수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위험 상황의 맥락(context)에 따라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유형'에 따라 문화적 요인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위험유형은 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 밝혀졌는데, 특히 위험의 책임성에 대한 판단이 감정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a, *et. al.*, 2008). 문화적인 요인 또한 맥락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위험, 위기, 갈등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특성이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Lim, 1995; Shim, *et. al.*, 2008).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체면이 갈등해소 방식에 미치는 효과는 갈등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Kim & Yang, 2011). 따라서 위험 상황의 성격에 따라 문화적인 요인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문화적 요인, 감정 및 위험인식의 관계가 위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www.kci.go.kr

II. 문헌연구

1. 문화와 위험인식

문화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는 '문화이론'이다. 문화이론 학자들은 문화를 설명하는 대차원인 그룹(group:집단성의 정도)과 그리드(grid:위계성의 정도)에 따라 평등주의(egalitarian), 위계주의(hierarchist), 개인주의(individualist), 회의주의(fatalist)의 네 가지 문화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문화 유형에 따른 위험인식의 차이를 설명하였다(Dake, 1991). 문화이론은 문화와 위험인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시도로서 가치를 가지지만(Rippl, 2002), 문화이론의 가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후속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이에 학자들은 문화와 위험인식 간의 관계를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고유문화변수의 고려를 제안하였다(Boholm, 1996). 일반문화변수인 etic 변수 뿐 아니라 고유문화변수인 emic 문화변수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때,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Boholm, 1996). 고유문화변수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특정 문화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위험인식이 가지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 있어 고유문화변수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Kim, 2008).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은 심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정(情), 한(恨), 우리, 체면, 눈치, 핑계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위험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체면'과 '정/우리'를 중심으로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체면'[1]은 서양의 페이스(face) 개념과 비슷하지만, 서양의 페이스가 주로 개인적인 체면을 의미하는 반면 한국의 체면은 크게 개인체면과 사회체면으로 구성되어 있다(Lim & Choi, 1996). 체면의 사회적인 측면, 즉 '보여주기식' 체면이 한국의 체면의 독특한 점이며, 서양의 체면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Choi & Kim, 2000). 사회체면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이며, 언제나 '보이지 않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측면에서 집단주의적이다(Choi, 2000).

체면과 함께 한국인의 대표적 문화적 가치로 연구되어온 개념은 '정'과 '우리'의 개념이다. 선행연구에서 '정'과 '우리'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Choi, 2000). 정이란 대상에 대한 직간접 접촉과 공동 경험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정신 유대감이라고 정의되며(Kim, 1995), 이러한 정을 기반으로 한 한국인의 집단주의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우리'이다(Choi, 2000). 서양의 집단주의가 구성원들의 공통점과 자율성에 근거한 '개인화된 집단주의(individuated collectivism)'인 반면(Markus & Kitayama, 1991), 한국의 우리는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과 정(精)이라는 정서에 기반한 '관계적 집단주의(relational collectivism)'이다(Choi & Choi, 2002). 한국인들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집단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며, '우리' 관계가 형성되면 '정'이 교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Shim, *et. al.*, 2008). 이런 면에서, 정과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우리 관계를 통해 구성원들은 '정'을 느끼게 되며, 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우리' 의식은 강화된다(Shim, *et. al.*, 2008). '우리' 개념의 구성요소는 크게 정서적 우리성과 도구적 우리성으로 나누어진다(Choi, 1999). 정서적 우리성이 우리 의식을 통해 느끼게 되는 정서적 만족감, 소속감을 바탕으로 한다면, 도구적 우리성은 내집단을 통해 얻게 되는 기능적 만족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Choi & Choi, 2002).

체면과 정, 우리는 한국인들의 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체면'의 경우 체면민감성이 높은 사람들

1) '체면(體面, face)'과 비슷하게 혼용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낯, 체모, 위신, 체통, 품위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체면을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국립국어원)"로 정의하며 유사 개념을 대표하는 용어로써 사용하였다. '우리(we-ness)'는 사전적으로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국립국어원)'으로 정의되며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집단주의 정서를 가리키는 우리'의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www.kci.go.kr

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위험 회피 성향이 발견되었다(Lee & Kim, 2006). 또한 체면은 환경위험, 범죄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위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ang, 2015). '우리'의 경우, 우리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며, 사회적 지원을 추구하려는 성향과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이 강했다 (Choi & Choi, 2002).

그러나 문화와 위험인식 연구는 문화와 위험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를 통해 좀 더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Peters, *et. al.*, 2004). 본 연구는 문화적 요인과 위험인식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변수와 위험인식에 미치는 문화적 요인의 효과를 조절하는 상황 변수를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문화와 위험인식 연구를 확장하고자 한다. 우선 문화 변수와 위험인식을 매개하는 변수로써 '감정'에 주목한다. 감정은 종종 한국인들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한국인들 스스로도, 또 한국인을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은 감정적인 민족'이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Choi, 2000; Shim, *et. al.*, 2008). 감정이 한국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던 그동안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Song, *et. al.*, 2008; Na, *et. al.*, 2008), 한국인의 문화적 특징과 감정, 그리고 위험인식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문화와 위험인식에 미치는 감정의 매개효과

학자들은 위험 상황 자체가 '감정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반인들은 위험 인식에 있어 인지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는 경향이 크다(Lowenstein, *et. al.*, 2001). 감정과 위험인식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연구된 감정은 공포(fear)와 분노(anger)이다. 분노와 공포는 둘 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통제(control)와 책임성(responsibility)에 있어 차이가 있다 (Visshchers, *et. al.*, 2012). 즉 부정적 상황의 책임이 타인에게 있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으며, 상황이 명확한 경우 분노가 유발되는 반면, 상황이 불확실하며 통제가능성이 낮을 때에는 공포가 유발된다는 것이다(Dohle, *et. al.*, 2012).

실증연구 결과 공포는 위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반면 분노는 위험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분노의 경우 오히려 위험 인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erner & Keltner, 2000; Lerner, *et. al.*, 2003).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과 관련된 일반인들의 위험 인식 및 조류 독감 유행 이후 조류 독감에 대한 위험인식을 살펴보았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은 테레리즘/조류독감이 매우 위험하다고 인식한 반면,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의 경우 테러리즘/조류독감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였다(Han, *et. al.*, 2007). 그러나 모바일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분노와 공포 모두 위험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ohle, *et. al.*, 2012).

분노 및 공포와 더불어 위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연민(sympathy)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감정 요인으로 밝혀졌다(Coombs & Holladay, 2007). 연구결과 위기 상황에 대한 조직의 책임성이 높은 경우 분노가 유발되었으며, 책임성이 낮은 경우 연민이 유발되었다(Coombs & Holladay, 2007; Choi & Lin, 2009).

이처럼 문화적 요인과 감정요인은 모두 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화와 감정, 위험인식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대체로 선행연구에서는 감정이 매개변수로써 독립변수인 문화요인과 종속변수(위험인식, 갈등전략 등)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Zhang, *et. al.*(2014)은 갈등상황에서 문화적 요인과 감정이 갈등해소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집단주의 문화변수는 연민과 죄책감을 거쳐 갈등해소전략에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주의 문화변수는 분노를 통해 갈등해소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14). 위험상황에서 문화요인과 감정이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

www.kci.go.kr

을 살펴보았던 Peters, *et. al.*(2004)의 연구에서도 감정은 문화적 요인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ters, *et. al.*, 2004).

감정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기본 감정은 크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으로 구분되며,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하는 기본 정서가 존재한다(Ekman, 1992; Rhee, *et. al.*, 2008). 그러나 같은 정서라고 할지라도 문화권에 따라 정서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Ekman, 1992), 감정 또한 문화적인 구성물이기 때문이다(Mesquita, *et. al.*, 2016).

문화적 요인과 감정 간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Hofstede의 문화변수 중 개인주의/집단주의, 불확실성의 회피, 장기지향성이 감정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개인주의 문화는 분노에, 집단주의 문화는 연민이나 공포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14). 또한 불확실성의 회피 성향이 강한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정 표현을 더 빈번하게 하며,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Hofstede, 2001).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나라의 경우,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높은 수준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경험하게 된다(Hofstede, 2001). 장기지향성 역시 감정 표현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emert, *et. al.*, 2007). 장기지향성은 구성원들이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감정적, 사회적 욕구를 억제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데(Hofstede, 2001), 장기지향성이 강한 문화권에서는 관계의 조화가 중시되기 때문에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감정적 반응은 제한되고 통제되는 경향을 보인다(Hemert, *et. al.*, 2007).

한국은 Hofstede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집단주의,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이 모두 높은 문화권이다(Hofstede, 1984). 그러나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징과 감정과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Rhee, *et. al.*(2008)은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서 용어를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기쁨, 긍지, 사랑, 공포, 분노, 연민, 수치, 좌절, 슬픔의 9가지 기본적인 정서 차원을 밝히고, 이 중 연민과 수치의 경우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두드러지는 정서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개별 감정 간의 관계를 살펴보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험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특성이 구체적인 감정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감정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즉 감정의 매개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문화와 위험인식에 미치는 위험 유형의 조절효과

문화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감정을 매개변수로 상정하는 것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위험의 유형에 따라 문화 변수가 감정 변수 및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즉, 위험의 유형이 문화변수, 감정변수 및 위험인식의 경로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위험의 주관적인 속성을 고려하여 인식변수를 통해 위험을 유형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중이 인식하는 자발성, 즉각성, 개인의 지식, 통제성, 최신성, 두려움, 결과의 심각성, 책임성 등에 따라 위험의 유형이 구분될 수 있는데(Fischoff, *et. al.*, 1978), 본 연구에서는 '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책임성에 따라 위험을 유형화하고 그 조절효과를 살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책임성은 위험한 상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위험의 귀인(attribution)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귀인은 감정의 선행요인으로서, 귀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발생되는 감정에 차이가 나타난다(Lerner & Keltner, 2000).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험 상황에 대한 귀인의 차이에 따라 공포가 유발되기도 하고 분노가 유발되기도 하며, 동정심이 유발되기도 한다(Han, *et. al.*, 2007). 둘째, 귀인은 문화적 요인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문화에 따라

www.kci.go.kr

감정의 판단 근거로 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Mesquita, *et. al.*, 2003). 예를 들어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분노의 감정이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상황에 대한 책임성'이 감정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Matsumoto, *et. al.*,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성에 따른 위험의 유형이 문화가 감정 및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 연구문제 1. 문화적 요인(체면, 우리)과 위험인식 사이에서 감정적 요인(공포, 분노, 연민)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연구문제 2. 문화적 요인(체면, 우리)과 감정(공포, 분노, 연민), 위험인식 간의 관계는 위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

Ⅳ. 방법론

1.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만25세 이상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표집은 할당 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연령과 성별의 비율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10) 자료에 근거하였다. 총567개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283명(49.9%), 여성 294명(50.1%)이었으며,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42.3세였다.

설문지는 응답자의 문화적 성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위험 상황을 설명하는 시나리오, 감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및 위험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위험 상황 시나리오는 정부책임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조작되었는데, 정부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GMO 식품 수입)과 정부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원인을 알 수 없는 대장균 발견)에 대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여러 가지 위험 상황 중 식품 위험과 관련된 상황을 택하여 시나리오로 조작한 이유는 식품 위험이 다양한 위험 상황 중에서도 특히 감정적 반응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Frewer, *et. al.*, 2003). 시나리오의 조작 검증 결과, 정부책임성이 높은 위험상황과 정부책임성이 낮은 위험상황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조작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t=-5.703$, $p \leq .000$).

2. 변인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고유 문화 변수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고유문화변수인 체면과 우리를 측정하였다. 체면을 측정하기 위해 Kim & Yang (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우리를 측정하기 위해 Choi & Choi(200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체면은 사회체면과 개인체면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는 도구적 우리성과 정서적 우리성의 2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 검증 결과 체면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684였으며 우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689 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Table 1〉과 같다.

2) 감정 변수

감정 변수로는 분노와 공포, 연민을 측정하였다. 분노와 연민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Jorgensen, 1996; Coombs & Holladay, 2007)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공포 또한 선행연구 (Peters, *et. al.*, 2004; Lerner, *et. al.*, 2003)에서 사용된 문항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결과 분노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939, 공포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921, 연민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809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Table 1〉과 같다.

www.kci.go.kr

Table 1. Cronbach alpha coefficients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Variables			Items	No. of Items	Cronbach α
Culture	Chemyon	Social	when I acted unethically	13	.684
			when my behavior was not clear		
			When I have to engage in an inappropriate behavior for the sake of instant benefit		
			When my words don't match with my behavior		
			When I didn't act adequately		
			When I couldn't follow the social norm		
			When I couldn't fully execute my job		
			When I am inferior to others in performance		
			When I could not keep up to other's expectation		
			When my expertise was not recognized		
			When I couldn't keep neat and tidy		
			When I misbehaved		
			When I acted vulgarly		
		Personal	When my parents have relatively lower social status	13	
			When my family is inferior to other's families		
			When I lack outstanding academic background		
			When I couldn't achieve social success		
			When I don't receive a decent evaluation from others		
			When I was not acknowledged as a colleague		
			When I am presented negatively to others		
			When I couldn't defend myself with good reason when being criticized		
			When my weaknesses were shown to some one of lower standing		
			When I fail to keep pride		
			When I was not treated with respect according to my status or position		
			When my weaknesses were revealed to others		
			When I couldn't behave in accordance with my status or position		
	Uri	Instrumental	I consider close friends as my brothers.	5	.689
			If my friend has a problem, I worry as if it is my own problem.		
			If my friend asks me a favor, I tend to accept even if I have to sacrifice myself.		
			I feel assured when my friends are beside me.		
			I have many friends around me who can help me if I have a trouble.		
		emotional	I feel more comfortable when I am with many people than when I am alone.	5	
			I prefer working with others than working alone.		
			I don't like going outside alone.		
			When I work with friends, I think relationship is more important than the work.		
			I try to become an amicable person than a smart person.		
Emotions	anger	After reading the scenario, I feel irritated.		2	.939
		After reading the scenario, I feel annoyed.			
	sympathy	After reading the scenario, I feel pitiful.		2	.809
		After reading the scenario, I feel sympathy.			
	fear	After reading the scenario, I feel afraid.		2	.921
		After reading the scenario, I feel dreaded.			
Risk Perception	The risk is a very dread risk.			3	.720
	The risk is not safe at all.				
	The risk involves considerable riskiness to the society.				

www.kci.go.kr

3) 위험 인식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위험인식을 측정하였다. 위험인식은 식품 위험과 관련한 선행연구(Poortinga & Pidgeon, 2003; Yee & Young, 2002; Frewer, *et. al.*, 2003)에서 사용되었던 위험인식 항목을 채택하였다. 위험인식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720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Table 1〉과 같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의 검증을 위해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1차적으로 측정모형에 포함된 요인과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문화적 요인과 위험인식 간의 관계에 있어 감정의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 1〉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직간접효과와 전체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위험 유형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상정한 〈연구문제 2〉는 책임성 수준이 높은 위험과 책임성 수준이 낮은 집단으로 구성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V. 연구결과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카이자승값은 241.341 (df=50, p=.000), GFI=0.939, AGFI=0.889, RMR=0.064, NFI=0.928, CFI=0.942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반적인 적합지수 판단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은 분산추출지수와 개념 신뢰도를 통해 확인했다. 각 요인별 분산추출지수와 개념 신뢰도는 분산추출지수의 경우, 연민[2]을 제외한 모두 변수에서 0.5이상으로 나타났고, 개념 신뢰도의 경우 0.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문화(체면, 우리) → 감정(분노, 연민, 공포) → 위험인식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다. 절대부합지수인 기초부합치(GFI)=.934, 조정부합치(AGFI)=.885로 나타났고 증분부합지수인 표준부합지수(NFI)=.924로 나타나 모

Table 2. The fitness of study model

Fitness Index	Absolute Fit Index				Incremental Fit Index			
	χ^2	*RMR*	*AGFI*	*GFI*	*NFI*	*IFI*	*TLI*	*CFI*
	256.080, df=52 p=.000	.065	.885	.934	.924	.938	.906	.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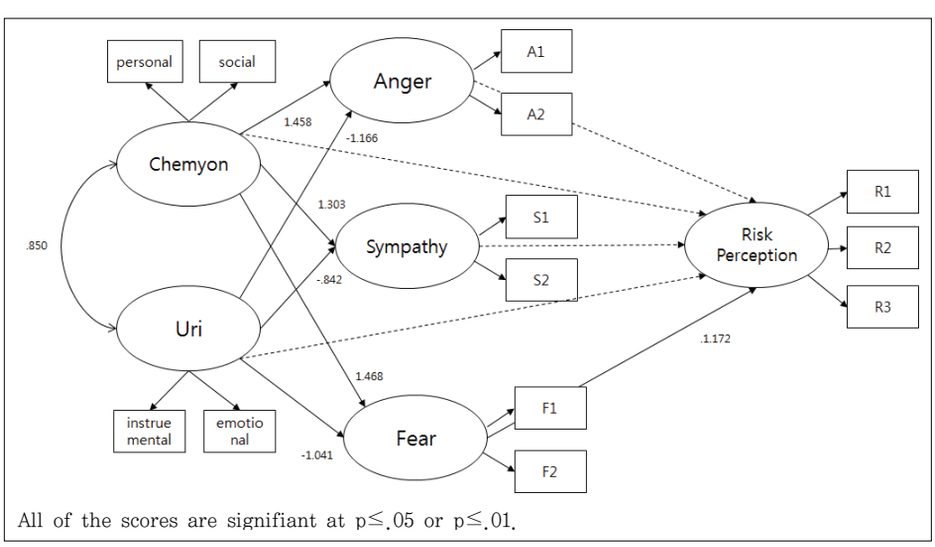

Figure 1. Test result of study model

2) '연민(sympathy)'의 경우, 크론바흐 알파값이 .809로 나타났기 때문에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www.kci.go.kr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 emotion and risk perception

Path			Estimate(Standardized)	S.E.	C.R.
Chemyon	→	anger	8.369 (1.458)	2.059	4.065***
	→	sympathy	2.767 (1.303)	.827	3.347***
	→	fear	8.298 (1.468)	2.027	4.094***
Uri	→	anger	−2.545 (−1.166)	.771	−3.302***
	→	sympathy	−.680 (−.842)	.277	−2.455**
	→	fear	−2.238 (−1.041)	.747	−2.994**
anger	→	risk perception	.174 (.598)	.111	1.558
sympathy	→	risk perception	.330 (.421)	.252	1.311
fear	→	risk perception	.346 (1.172)	.138	2.513**
Chemyon	→	risk perception	−5.304 (−3.182)	3.751	−1.414
Uri	→	risk percpetion	1.509 (2.381)	1.132	1.333

* p≤.05, **p≤.01, ***p≤.001

Table 4. Direct, indrect and total effects of exogenous and endogenous variables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hemyon	→	anger	1.458***	---	1.468**
	→	sympathy	1.303***	---	1.303**
	→	fear	1.468***	---	1.458**
Uri	→	anger	−1.166***	---	−1.166**
	→	sympathy	−.842**	---	−.842*
	→	fear	−1.041**	---	−1.041**
anger	→	risk perception	.598	---	.598
sympathy	→	risk perception	.421	---	.421
fear	→	risk perception	1.172**	---	1.172*
Chemyon	→	risk perception	−3.182	3.140	−.042
Uri	→	risk percpetion	2.381	−2.271	.110

* p≤.05, **p≤.01, ***p≤.001

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문화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감정의 매개효과

먼저 감정(분노, 연민, 공포)에 대한 체면과 우리의 직접효과는 $p \leq .05$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Figure 1〉 참조). 체면은 분노(β=1.458, $p \leq .05$)와 연민(β=1.303, $p \leq .05$), 공포(β=1.468, $p \leq .05$)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체면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분노와 연민, 그리고 공포가 더 크게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의 경우 분노(β=−1.166, $p \leq .05$)와 연민(β=−.842, $p \leq .05$), 그리고 공포(β=−1.041, $p \leq .05$)에 대해 부적 영향을 보여 우리 의식이 높아질수록 분노와 연민 그리고 공포의 감정은 덜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인식에 대한 감정의 직접효과는 공포의 경우만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β=1.172, $p \leq .05$) 공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위험인식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3〉 참조).

다음으로 문화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정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간접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으나 p≤.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전체인과효과를 통해 보면 '우리'가 공포를 경유하여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 의식이 클수록 공포심이 적게 유발되어, 결과적으로 위험인식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참조).

2. 문화가 감정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유형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 정부책임성에 따른 위험의 유형에 따라 문화와 감정, 위험인식의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전체 집단의 모형 적합도가 확보되었으므로 개별 집단 즉 정부책임

www.kci.go.kr

Table 5. The fitness of study model

Model	Absolute Fit Measures				Incremental Fit Measures			
	χ^2	*RMR*	*RMSEA*	*GFI*	*NFI*	*IFI*	*TLI*	*CFI*
High Resp.	165.883, df=52 p=.000	.068	.087	.918	.905	.933	.898	.932
Low Resp.	173.598, df=52 p=.000	.058	.092	.916	.898	.927	.888	.925

Table 6. The influence of culture on emotion and risk perception : The moderating role of risk type

Path			High Responsibility Risk		Low Responsibility Risk	
	→	anger	Estimate	P	Estimate	P
Chemyon	→	sympathy	.240	***	−.714	.054
	→	fear	.303	**	−.864	.082
	→	anger	.302	***	−.261	.355
Uri	→	sympathy	.035	.582	1.106	**
	→	fear	.478	**	1.484	**
anger	→	risk perception	.136	*	.888	**
sympathy	→	risk perception	.118	.087	−.221	.540
fear	→	risk perception	−.073	.573	−4.382	.792
Chemyon	→	risk perception	.344	**	.447	.125
Uri	→	risk percpetion	−.173	.081	−4.175	.784
			.120	.220	6.864	.790

* p≤.05, **p≤.01, ***p≤.001

성 높은 위험 유형과 정부책임성 낮은 위험 유형이라는 개별 집단의 모형 분석을 위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했다(Kim, 2010). 먼저 정부책임성 높은 위험 유형의 경우 절대부합지수인 기초부합치(GFI)=.918, 증분부합지수인 표준부합지수(NFI)=.905로 나타났고, 정부책임성 낮은 위험 유형의 경우, 기초부합치(GFI)=.916, 증분부합지수인 CFI=.925로 나타나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5〉 참조).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집단 간 비교방법을 사용하여 집단별 행렬의 par 값을 통해 특정 집단의 차이를 나타내는 z 통계량을 확인했다. 집단 간 비교는 교차타당성(cross validation)을 적용한 분석 방법으로(Byrne, 2001), 교차타당성이 같은 모형에서 두 개의 표본이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착안하여, 연구모형이 각 집단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분석하는 것이다(Kim, *et. al.*, 2009). 만약 z 통계량이 ±1.96보다 크면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는 유의하고 두 집단에는 교차타당성이 없는 반면 ±1.96보다 작으면 두 집단 간의 경로계수는 유의하지 않고 두 집단은 교차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각각의 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과 열이 만나는 z값을 확인했다. 체면이 분노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 책임성이 높은 위험과 책임성이 낮은 위험의 경로계수 par 값이 만나는 z 통계량을 비교한 결과 z 값이 ±1.96보다 작게 나타났고 이에 두 집단은 교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두 개의 모형, 책임성 높은 위험 유형과 책임성 낮은 위험 유형에서 나타난 각각의 경로값은 동일 선상에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Table 6〉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정부책임성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 의식이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분노, 연민, 공포심이 유발되는 반면 정부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 의식이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의 경우 정부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연민과 공포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부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분노, 연민, 공포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 요인이 감정과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모형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경로를 검토했다. 먼저 책임성 높은 위험 유형의 경우, 체면과 우리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모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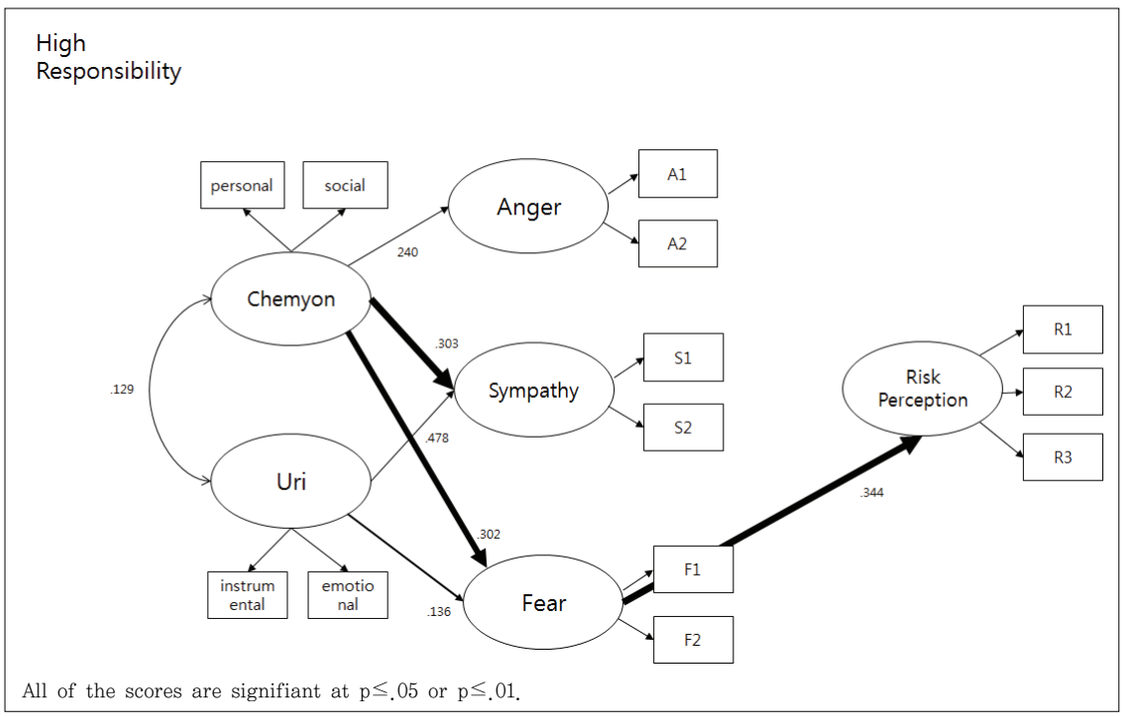

Figure 2. Influence of culture on emotion and risk perception (high government-responsible risk)

Table 7. The influence of culture on emotion and risk perception (high government-responsible risk)

Path			Estimate(Standardized)	S.E.	C.R.
Chemyon	→	anger	.656 (.240)	.199	3.294***
	→	sympathy	.474 (.303)	.185	2.564***
	→	fear	.814 (.302)	.205	3.975***
Uri	→	anger	.054 (.035)	.098	.550
	→	sympathy	.424 (.478)	.134	3.166***
	→	fear	.208 (.136)	.106	1.958*
anger	→	risk perception	.026 (.118)	.015	1.714
sympathy	→	risk perception	−.028 (−.073)	.050	−.564
fear	→	risk perception	.078 (.344)	.030	2.566***
Chemyon	→	risk perception	−.106 (−.173)	.061	−1.745
Uri	→	risk percpetion	.041 (.120)	.034	1.226

* p≤.05, **p≤.01, ***p≤.001

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체면은 분노(β=.240, p≤.05), 연민(β=.303, p≤.05), 그리고 공포(β=.302, p≤.05)에, 우리는 연민(β=.478, p≤.05)과 공포(β=.136, p≤.05)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우리'의 경우, 분노에 대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위험인식에 대한 감정의 직접효과는 공포의 경우에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β=.344, p≤.05). 검증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정부 책임성이 큰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분노와 연민, 공포를 느끼며, 공포는 다시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포와 연민의 감정이 유발되는데, 특히 연민을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로 인해 유발된 감정은 위험인식에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Table 7〉 참조).

다음으로, 정부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 체면과 우리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였다. 체면의 경우 분노에 대한 부적 영향만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β=−.714, p≤.05), 우리의 경우 분노(β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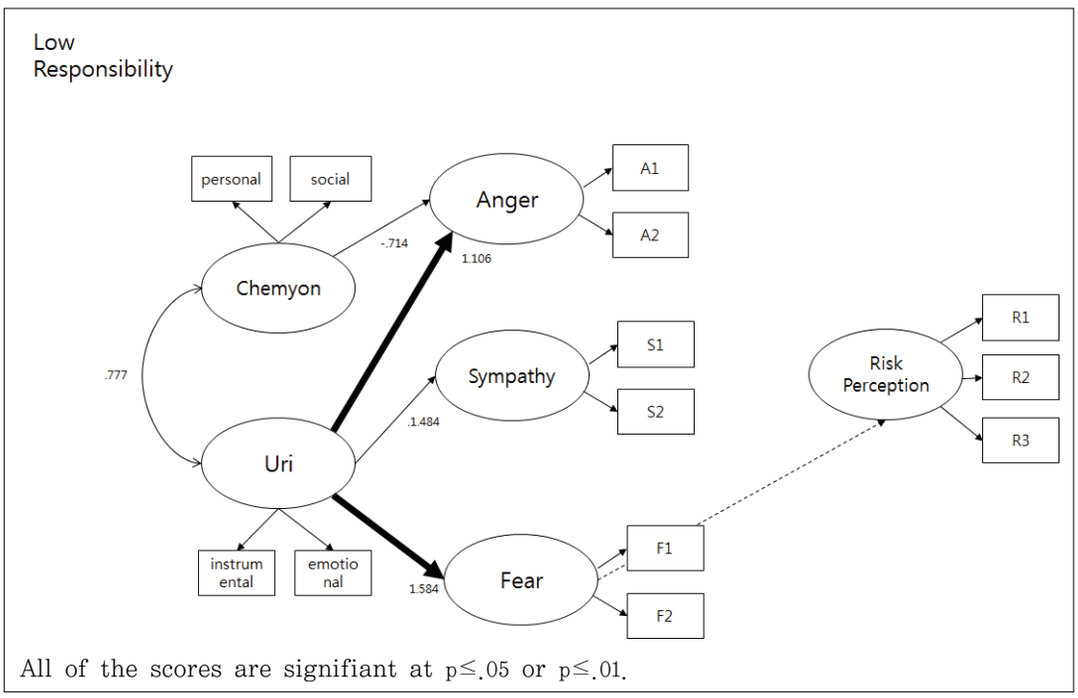

Figure 3. nfluence of culture on emotion and risk perception (low government-responsible risk)

Table 8.The influence of culture on emotion and risk perception (low government-responsible risk)

Path			Estimate(Standardized)		S.E.	C.R.
Chemyon	→	anger	−1.472	(−.714)	.763	−1.930*
	→	sympathy	−.842	(−.864)	.485	−1.739
	→	fear	−.512	(−.261)	.554	−.924
Uri	→	anger	6.261	(1.106)	2.075	3.018**
	→	sympathy	3.977	(1.484)	1.400	2.842**
	→	fear	4.791	(.888)	1.584	3.025**
anger	→	risk perception	−.081	(−.221)	.132	−.613
sympathy	→	risk perception	−3.397	(−4.382)	12.908	−.263
fear	→	risk perception	.172	(.447)	.112	1.535
Chemyon	→	risk perception	−3.157	(−4.175)	11.519	−.274
Uri	→	risk percpetion	14.258	(6.864)	53.500	.267

* p≤.05, **p≤.01, ***p≤.001

=1.106, p≤.05)와 연민(β=1.484, p≤.05), 그리고 공포(β=.888, p≤.05)에 대한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인식에 대한 감정의 직접효과는 p≤.05 수준에서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3〉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부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인 경우, 체면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분노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의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분노와 연민 그리고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문화적 요인이 감정 유발에 영향을 미치나, 이것이 위험인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Table 8〉 참조).

Ⅵ.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문화와 위험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감정변수와 맥락변수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을 어떻게 매개하고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는 문화적 요인과 위험인식 사이에

www.kci.go.kr

감정변수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변수인 체면과 우리는 감정변수인 공포, 분노 그리고 연민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감정변수들 중에서는 공포만이 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험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체면이나 우리와 같은 문화적 특성은 공포, 분노, 연민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였지만, 이 중 분노와 연민은 공중들이 느끼는 위험의 수준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면과 우리는 모두 공포, 분노, 연민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력의 방향성은 반대였다. 즉 체면 의식이 강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포, 분노 및 연민의 감정이 유발되었으나, 우리 의식이 강할수록 공포, 분노 및 연민의 수준은 낮아졌다. 또한 공포, 분노 및 연민에 미치는 체면의 영향력이 우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 우리보다는 체면이 위험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문제 2에서는 문화와 감정, 위험인식의 관계가 위험사안의 책임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위험의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경로에 차이가 나타났다. 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GMO식품 수입)에서는 체면과 우리가 모두 감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적 요인의 효과는 감정 변수 가운데 공포를 거쳐 위험인식으로 이어졌다. 한편 책임성이 낮은 위험(원인불명 대장균 출현) 상황에서는 분노와 공포, 연민 중 어떠한 감정변수도 문화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책임성이 낮은 위험상황에서는 문화적 요인이나 감정적인 요인이 위험인식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요인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위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 체면은 모든 감정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연민과 공포에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체면과 우리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반대로 나타났던 전체 모델의 경로와 달리, 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과 우리가 모두 감정 (연민과 공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체면이 우리보다 공포 유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연민에 대한 영향력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과 우리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로 나타났으며, 체면보다는 우리가 감정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위험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고유한 문화 요인 중 우리보다는 체면이 감정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이렇게 유발된 감정은 위험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면의식이 높을수록 공포의 감정을 더 크게 느끼고 그러한 공포심이 위험인식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체면에 민감한 사람들은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으며, 불확실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인다. 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체면 손상의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Lee & Kim, 2006). 또한 이와 같은 경향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사회적인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도 발견된다. 체면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적인 위험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나 세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 때, 혹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체면 손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게 된다(Kim, 2008). 특히 개인의 능력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식되는 '사회적' 위험 상황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식품 위험 상황 등)에서 체면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달성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되며, 이와 같은 판단이 공포감이나 위험인식으로 이어지게 된다. 체면과 위험인식의 관계를 살펴보았던 선행연구에서도 체면은 사고, 질병 등과 같은 개인적인 위험보다는 경제적 위험, 환경위험, 식품위험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 상황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15). 본 연구 결과는 식품 위험이라는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체면 의식이 공포라는 감정을 유발시키며, 나아가 위험인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

www.kci.go.kr

둘째, 위험 유형에 따라 문화적 요인과 감정 그리고 위험인식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일한 식품 위험 상황이지만 정부의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되는 위험 상황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는 위험 상황에서 각각 문화와 감정, 위험인식의 경로를 살펴본 결과, 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공포의 감정이 문화와 위험인식을 매개하였으나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문화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문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인식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던 반면, 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문화적 요인이 공포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특징은 사회적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Yang, 2015). 사회 신뢰 수준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스스로의 네트워크(연줄 등)를 이용하여 위험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데(Lim, 1995), 정부책임성이 높은 위험 사안의 경우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즉 개인의 네트워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이기에 더욱 심각한 위험으로 인식된다(Yang, 2014). 따라서 정부 책임성이 높다고 인식되는 위험 상황에서 문화적인 요인은 감정을 경유하여 위험인식에까지 영향을 주었던 반면, 정부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의 경우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감정이 유발되기는 하지만 그 감정이 위험인식에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위험 유형에 따라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문화 변수에 차이가 나타났던 점도 주목할 점이다. 정부 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과 우리가 모두 감정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가운데 체면이 우리보다 큰 영향력을 나타낸 반면, 정부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 체면은 오히려 분노의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한국인들의 '우리' 개념은 내집단(in-group)의 의미를 포함한다(Choi & Choi, 2002). 한국인들은 종종 내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태도와 외집단(out-group) 구성원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들에게 내집단, 즉 '우리'집단이 가지는 중요성 때문이다(Shim, *et. al.*, 2008). 한국인들은 내집단을 통해 결속감과 같은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뿐 아니라 내집단의 안위를 보장하고,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추구한다(Shim, *et. al.*, 2008). 또한 한국인들에게 있어 내집단은 위험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Yang, 2014). 따라서 정부 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 즉 책임의 귀인이 불분명하고 해결책 또한 불분명한 위험 상황에서는 자신이 속한 내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게 되어, '우리' 의식이 상대적으로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책임성 귀인이 분명한 위험 상황, 즉 정부 책임성이 큰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는 위험 관리의 책임 주체인 정부와 위험 상황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형성된다. 이처럼 위험 상황이 갈등 상황으로 발전되는 경우 체면 의식은 극대화된다 (Kim & Yang, 2011). 따라서 정부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이 부정적인 감정(분노, 공포)을 더 강하게 유발시키고 이러한 감정이 나아가 위험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해야 하는 정부나 기업들에게 실용적 함의를 제안한다. 연구결과 체면이나 우리와 같이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인 특성은 위험 상황에서 감정 유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그러한 감정은 궁극적으로 위험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향후 위험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수용자들의 감정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 책임성이 높게 인식되는 위험 상황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감정은 바로 위험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를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www.kci.go.kr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체면과 우리를 구성하는 세부 차원의 영향력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체면은 사회체면과 개인체면으로(Kim & Yang, 2011), 우리는 정서적 우리와 도구적 우리의 차원으로(Choi & Choi, 2002)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요인과 감정 및 위험인식의 경로를 검증하는 것이었기에 각 변수를 구성하는 하부 변수의 영향력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문화 변수의 하위 차원의 영향력까지 고려한다면, 문화적 요인이 가지는 영향력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정한 위험 상황은 식품 위험 상황에 한정되어 있다.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한 적용, 즉 환경위험이나 질병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한국인의 문화적 요소와 감정 그리고 위험인식의 관련성을 검증한다면 한국 상황에 맞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대한 선순환적 요인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Boholm, A. 1996. The Cultural Theory of Risk: A Anthropological Critique. *Thenos*. 61: 64-84.

Choi, In Jae and Sang Jin Choi. 2002. The Effects of Korean Cultur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Coping Styles,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1): 55-71.

Choi, Sang Jin and Ki Bum Kim. 2000.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Chemy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4(1): 185-202.

Choi, Sang Jin. 2000. *Korean Psychology*. Seoul: Chungang University Press.

Choi, Y. and Y. Lin. 2009. Consumer's Response to Mattel Product Recalls in Online Bulletin Boards: Exploring Two Types of Emotio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21(2): 198-207.

Coombs, W. and S. Holladay. 2007. The Negative Communication Dynamic: Exploring the Impact of Stakeholder Affect on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Management*. 11(4): 300-312.

Dake, K. 1991.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of Risk: An Analysis of Contemporary Worldviews and Cultural Bias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2(1): 61-82.

Dake, K. 1992. Myths of Nature: Culture and Social Construction of Risk. *Journal of Social Issues*. 48(4): 21-37.

Dohle, S., C. Keller, and M. Siegrist. 2012. Fear and Anger: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Response to Mobile Communication. *Journal of Risk Research*. 15(4): 435-446.

Douglas, M. & A. Wildavsky. 1982. *Risk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kman, P. 1992. Are There Basic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9: 550-553.

Finucane, M., A. Alhakami, P. Slovic, and S. Johnson.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ural Decision Making*. 13: 1-17.

Fischoff, B., P. Slovic, and R. Lichtenstein.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9: 127-152.

Frewer, L., J. Scholderer, and L. Bredahl. 2003. Communicating about Risks and Benefit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The Mediating Role of Trust. *Risk Analysis*. 23(6): 1117-1133.

Han, S., J. Lerner, and D. Keltner. 2007. Feelings and Consumer Decision Making: The Appraisal-Tendency Framework.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3): 158-168.

Hemert, D., Y. Poortinga, and F. van der Vijver. 2007. Emotion and Culture: A Meta-analysis. *Cognition and Emotion*. 21(5): 913-943.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Thousand Oaks. CA: Sage.

Jeong, Soo Bok. 2007. *Koreans' Cultural Grammer*. Seoul: Tree of Thought.

www.kci.go.kr

Jin, Joong Kwon. 2006. The Mass of Digital Duplication. *Critics.* 13: 42-55.

Kim, Joo Whan, Min Kyu Kim, and Se Hee Hong. 2009. *Writing Thesis with SEM.* Seoul: Communication Books.

Kim, Kye Soo. 2010. *Analysis of SEM.* Seoul: Hanarae.

Kim, U. and J. Berry. 1993. *Indigenous Psychology: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Newbury Park. CA: Sage.

Kim, Yung Wook and Jung Eun Yang. 2011. The Influence of Chemyon on Facework and Conflict Styles: Searching for the Korean Face and Its Impact. *Public Relations Review.* 37(1): 60-67.

Kim, Young Ryong. 1995. The Land of Tranquil Cheong. in Lim, Tae Seoup. (ed.). *Cheong, Chemyon and Koreans' Human Relationship.* Seoul: Hanarae.

Kim, Yung Wook and Jung Eun Yang. 2011. Chemyon, Communic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Korean Society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ed.). *Communication Crisis of Korean Society.* Seoul: Communication Books.

Kim, Yung Wook. 2008. *Risk, Crisis and Communic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Kitayama, S., H. Markus, and M. Kurokawa. 2000. Culture, Emotion, and Well-being: Good Feeling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Cognition and Emotion.* 14(1): 93-124.

Kitayama, S., B. Mesquita, and M. Karasawa. 2006. Cultural Affordances and Emotional Experience: Socially Engaging and Disengaging Emotions in Japan and United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890-903.

Kitayama., S. and H. Marcus. 1999. Yin and Yang of the Japanese Self: The Cultural Psychology of Personality Coherence. in Cervone, D. and Y. Shoda. (eds.). *The Coherence of Personality, Social Cognitive Basis of Personality Consistency, Variability and Organization.* 242-302. New York: Guilford Press.

Lee, Chung Won and Hyo Chang Kim. 2006. An Analysis of Influences of Chemy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Self-esteem on Uncertainty Avoidance Tendency.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3): 17-30.

Lerner, J. and D. Keltner. 2000. Beyond Valence: Toward a Model of Emotion-specific Influences on Judgement and Choice. *Cognition and Emotion.* 14(4): 473-493.

Lerner, J. and D. Keltner. 2001. Fear, Anger and Ris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1): 146-159.

Lerner, J., R. Gonzalez, D. Small, and B. Fischhoff. 2003. Effects of Fear and Anger on Perceived Risks of Terrorism: A National Field Experiment. *Psychological Science.* 14(2).

Lim, Tae Seop and Soo Hyang Choi. 1996.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Korea. in Gudykunst, W., S. Ting-Toomey, and Nishida. (eds.).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cross Cultures.*

Lim, Tae Seop. (ed.). 1995. *Cheong, Chemyon, Yeonjul and Koreans' Human Relationships.* Seoul: Hanarae.

Lowenstein, G., E. Weber, C. Hsee, and E. Welch. 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67-286.

Matsumoto, S., S. Yoo, and S. Nakagawa. 2008. Culture,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6): 925-937.

Mesquita, B. and P. Ellsworth. 2001. The Role of Culture in Appraisal. in K. Scherer and A. Schorr. (eds.).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Theory, Methods, Research.* 233-24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esquita, B., M. Boige, and J. de Leersnyder. 2016.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Emotion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8: 31-36.

Miyamoto, Y., Y. Uchida, and P. Ellsworth. 2010. Culture and Mixed Emotions: Co-occur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motion.* 10(3): 404-415.

Na, Eun Kyung, Hyun Joo Song, Hyun Suk Kim, and Jun Woong Rhee. 2008. News Framing Effects on Discrete Emotional Respons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2): 378-406.

Peters, E., B. Burraston, and C. K. Mertz. 2004. An Emotion-based Model of Risk Perception and Stigma Susceptibility: Cognitive Appraisals of Emotion, Effective Reactivity, Worldviews, and Risk Perceptions in the Generation of Technological Stigma. *Risk Analysis.* 24(5): 1349-1367.

Poortinga, W. and N. Pidgeon. 2003. Exploring Dimensionality of Trust in Risk Regulation. *Risk Analysis.* 23(5): 961-972.

www.kci.go.kr

Renn, O. 1992. Concepts of Risk: A Classification. in S. Kimsky and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53-79. Westport. CT: Praeger.

Rhee, June Woong, Hyun Joo Song, Eun Kyung Na, and Hyun Suk Kim. 2008. Classification of Emotion Terms i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1): 85-116.

Shim, T., M. S. Kim, and J. Martin. 2008. *Changing Korea: Understanding Culture and Communication*. New York. NY: Peter Lang.

Sjőberg, L. 2000. Factors in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0(1): 1-11.

Slovic, P., M. Finucane, E. Peters, and D. MacGregor. 2004. Risk as Analysis and Risk as Feelings: Some thoughts about Affect, Reason, Risk and Rationality. *Risk Analysis*. 24(2): 1-12.

Song, Hyun Joo, Hyun Suk Kim, and Jun Woong Rhee. 2008. Cognitive Appraisal of Primary Polls, Emotional Responses, and Their Impacts on Political Actio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2(4): 353-374.

Taylor-Goody, P. and J. Zinn. 2006. Current Directions in Risk Research: New Developments in Psychology and Sociology. *Risk Analysis*. 26(2): 397-411.

Visshchers, V., P. Wiedemann, H. Gutscher, S. Kurzenhäuser, R. Seidl, C. Jardine, and D. Timmermans. 2012. Affect-inducing Risk Communication: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Risk Research*. 15(3): 257-271.

Yang, Jung Eun. 2015. The Influence of Culture on Koreans' Risk Perception. *Journal of Risk Research*. 18(1): 69-92.

Yang, Jung Eun. 2014. The Influence of Culture on Koreans' Risk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8(1): 107-150.

Yee, W. and R. Yeung. 2002. Trust Building in Livestock Farmers: An Exploratory Study. *Nutrition & Food Science*. 32(4): 137-144.

Zhang, Q., S. Ting-Toomey, and J. Otzel. 2014. Linking Emotion to the Conflict Face-negotiation Theory: A U.S.-China in Interpersonal Confli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0: 373-395.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김계수. 201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한나래 출판사.

김영룡. 1995. 잔잔한 정의 나라. 한국. 임태섭(저), 정, 체면, 연줄,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김영욱.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영욱, 양정은. 2011. 체면, 소통 그리고 갈등해소. 한국언론학회(편) 한국사회 소통 위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나은경, 송현주, 김현석, 이준웅. 2008. 정서의 프레이밍: 경제 뉴스 보도 기사의 정서 반응 유발 효과. 한국언론학보. 52(2): 378-406.

송현주, 김현석, 이준웅. 2008. 대통령 후보 경선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인지평가와 정서 반응이 정치적 행동 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4): 353-374.

양정은. 2014.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홍보학연구. 18(1): 107-150.

이준웅, 송현주, 나은경, 김현석. 2008. 정서 단어 분류를 통한 정서의 구성 차원 및 위계적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1): 85-116.

이충원, 김효창. 2006. 체면민감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불안이 불확실성 회피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0(3): 17-30.

임태섭(편저). 1995. 정, 체면, 연줄 그리고 한국인의 인간관계. 서울: 한나래.

정수복. 2007.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서울: 생각의 나무.

진중권. 2006. 디지털 복제 시대의 대중. 비평. 13: 42-55.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김기범. 2000. 체면의 심리적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최인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문화 심리적 특성이 문제대응 방식, 스트레스,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 우리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55-71.

Received: Mar. 20, 2016 / Revised: May. 23, 2016 / Accepted: Jun. 7, 2016

www.kci.go.kr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과 위험인식

– 감정의 매개효과와 위험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문화와 위험인식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감정변수와 맥락변수가 위험인식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을 어떻게 매개하고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험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가진 체면이나 우리와 같은 문화적 특성은 공포, 분노, 연민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고 이러한 감정들 중 공포의 감정은 위험인식으로 이어졌다. 또한 위험 유형에 따라 감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문화 변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 책임성이 높은 위험 상황에서는 체면이, 정부책임성이 낮은 위험 상황에서는 우리가 감정유발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연구결과의 학문적, 실용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위험인식, 감정, 문화, 체면, 우리, 위험 커뮤니케이션

Profiles **Jungeun Yang** : Jungeun Yang received her BA, MA and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Advertising & Pubilc Relations, Pyeongtaek University, where she has been teaching since 2015. Her research area of interest includes risk communication, crisis communication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he also worked for Feishman-Hillard Korea and InComm Brodeur as a PR consultant(jeyang@ptu.ac.kr).

Soo Jin Kim : She received her B.A., M.A., Ph.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in 2015. She is a post-doc. fellow of media communication divis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lectures on public relations in Ewha Womans University.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public communication campaign, health & risk communication, and policy studies(sjinkim@ewha.ac.kr).

www.kci.go.kr